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 에이즈가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병이 될 것인가?

「세계는 하나, 희망도 하나(One World, One Hope)」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11차 세계에이즈학회가 지난 7월 7~11일까지 5일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려 치료제 개발등 에이즈에 관련된 각종 연구가 발표돼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세계는 하나, 희망도 하나(One World, One Hope)

「세계에이즈학회」를 다녀와서



오 운 수 / 의협신문 기자

필자는 세계 다국적 제약기업인 미국 머크(Merck)사의 초청으로 미국 뉴저지 화이트스태이션에 위치해 있는 본사와 펜실베니아의 연구소를 견학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가 귀국길에 캐나다에 들러 에이즈학회에 잠깐 동안

참석했다.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소 생소한 면은 많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석학들의 연구내용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필자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회에서 다뤄진 내용중에서 치료제의 개발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에이즈학회는 다른 의학 학술대회와는 달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지난 87년 최초로 공인된 에이즈치료제인 「AZT」의 등장이후 그동안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올해는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가 치료제의 개발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억제제」라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발표돼 에이즈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여기에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와 새로운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함께 투약하는 「병용요법」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치료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일명 「칵테일치료법」으로 불리는 이 병용요법은 에이즈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대한 빠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속성으로 내성을 갖게돼 약효가 빨리 사라지는 단점을 극복, 여러 약제를 동시에 투

여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에 대응하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어려워 그만큼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밴쿠버 대회에서 미국 머크사는 지난 86년부터 시작한 에이즈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부터 임상시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인 「크릭시반(Crixivan)」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머크사가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에이즈 관련 논문으로는 ▲ 크릭시반을 포함한 복합치료(48주 동안 크릭시반·3TC·AZT를 사용한 치료시험), ▲ 단독투여요법(48주 동안의 크릭시반 단독투여 효과), ▲ 약 내성의 감소(크릭시반이 복합제로서 사용되었을 때 약 내성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등이다.

미국 머크사 연구소의 에밀리오 에미니박사는 「크릭시반을 사용한 임상시험에서의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소효과」는 연구발표에서 「많은 환자에서 크릭시반의 우수성이 발견됐으며 투약후 24주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바이러스 농도는 여러 임상연구에서 1년 이상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에미니박사는 「비록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이같은 결과로 보아 크릭시반이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와 병용 투여되었을때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에이즈의 새

로운 치료 목표인 바이러스의 증식과 억제 내성을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수를 가능한 한 장기간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머크사가 개발한 「크릭시반」은 약의 내성을 줄인 최초의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로 적응증은 성인에서의 HIV-1 바이러스 감염증이며 특이한 적응증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머크사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이 치료제는 미국·브라질·멕시코등지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에서 3천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제3상 연구와 제4상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빛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 에이즈 신약들의 효과를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고 치료제도 환자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에이즈 감염자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구매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또 새로 개발되는 약들이 혈액



내 에이즈바이러스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빠른 돌연변이 속성상 좀 더 확실한 연구가 나와야 할 것이며 제약회사들 또한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약가의 현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수는 96년 9월말 현재 5백96명이며 이중 여성 감염자는 75명이라고 발표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외국의 감염정도에 비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걸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감염자와 에이즈가 성접촉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때 에이즈 예방을 위한 관련단체의 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이즈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A)